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4

"우리도 함께 뛴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기록보다는 친목 우선 함께 달리면 즐거워요

광주달리기 동호회

광주의 대표적 마라톤 동호회인 '광주달리기 동호회'가 지난 23일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위한 컨디션 조절에 나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칼바람과 함께 눈발이 휘날렸던 지난 주말 오후 염주체육관 광장에 마라톤 운동복 차림의 30여명이 모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마라톤 동호회인 광주달리기(회장 고재빈·이하 광달)동호회원들이 정기모임인 토요달리기를 위해 몸을 풀고 있었다. 서로 가볍게 얘기를 주고 받으며 준비운동을 마친 이들은 훈련팀장의 출발 신호와 함께 염주체육관 광장을 벗어나 주변을 2시간 정도 달렸다.

'광달'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달리면 더욱 즐겁습니다'. 기록 향상 보다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이 우선이다는 동호회 운영 기본 취지이다.

먼저 운동을 통해 회원간의 돈독한 정을 쌓아오고 있다.

일명 '수달'(수요달리기)·'토달'(토요달리기)·'일달'(일요달리기)로 매주 세 번씩 달리기 모임을 갖는다. '수달'은 오후 7시 30분 월드컵보조경기장, '토달'은 오후 4시 염주체육관 주변 그리고 '일달'은 오전 첨단교통공원에서 모여 2시간 정도 달리며 구슬땀을 흘린다. 운동 중 지친 회원들을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뜨거운 동료애를 발휘하곤 한다.

2,600여 회원 '정 나눔의 장'

또 매월 한 번씩 운동이 아닌 식사를 같이하며 '세상사는 얘기'를 주고 받는다. 특히 애·경사와 같은 회원들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서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형제 못지않는 우애를 나눈다. 이외에도 1년에 한번씩 지리산 종주와 하계캠프를 실시한다.

지난 2000년 달리기에 관심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창립된 '광달'은 10년 만에 정회원 100명, 온라인 회원 2천500여명을 보유한 대규모 동호회로 성장했다.

회원들의 기량도 대단하다.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 달성 회원도 20여명이나 된다.

그 중 김성익(41)씨는 지난해 대회 10번 출전해서 서브-3를 달성, 모임에서 '달리기의 달인'으로 불리울 정도이다. 김 씨는 "나에게는 이번 광주일보 마라톤대회가 첫 대회인 만큼 반드시 서브-3를 달성하겠다"며 출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광달'에서 풀코스 최다 완주자는 53세의 김기흥씨로 무려 65회를 기록 중이다.

이들 외에도 철인에 도전하는 회원들도 많다. 김성균(49)·정신연(44)·고재빈(53)·최봉규(53)·김기흥(53)씨는 지난해 울트라 대회를 완주한 괴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최봉규씨는 제주 국제 철인대회에서 14시간30분을 기록한 철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서브-3 주자 20여명 달해

모임에서는 또 부부회원들도 있어 싱글 회원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김기흥·정신연 , 최석진(53)·이명숙(50), 정원주(47)·정선(44), 김종귀(43)·박은경(40)씨 등이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하며 모임에 빠지지않고 열심히 달리는 회원들이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OK'인 만큼 연령층도 6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하다. 모임 내 '맏형'인 정지남(63)씨는 정기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면서 젊은 회원들 못지않는 체력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고재빈 회장은 "매년 광주일보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리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겨우내 쌓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겠다" 면서 "아울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다"고 대회 참가의미를 밝혔다.

가족과 같은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하는 광주달리기의 힘찬 질주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연경 30점 폭발

日프로배구 팀 12연승 견인

일본여자프로배구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30점을 퍼부어 팀의 12연승 행진에 앞장섰다.

김연경은 24일 도쿄체육관에서 계속된 정규 시즌 NEC 레드로켓츠와 경기에서 공격 득점 27점, 블로킹 3점 등 30점을 몰아 때렸다. 30점은 지난 17일 도레이 애로우즈와 경기에서 올린 39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다. 김연경의 맹공을 앞세운 JT 마블러스는 3-2(25-21 25-15 19-25 20-25 15-13)로 승리, 개막 후 12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를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셔틀콕 기대주 배연주 말련오픈 아쉬운 준우승

한국 셔틀콕의 기대주 배연주(20·KT&G)가 말레이시아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에서 세계랭킹 1위를 격파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배연주(세계랭킹 61위)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신(세계랭킹 10위)과 경기를 하다가 3세트 도중 기권해 1-2(21-19 17-21 6-14)로 패했다. 1세트를 먼저 따낸 배연주는 2세트에서도 팽팽한 승부를 펼친 끝에 내줬다. 하지만 3세트 경기를 하다가 일시적인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코칭스태프는 상태를 점검한 후 기권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나상욱 '톱 10' 보이네

PGA 봅호프클래식 3R 9위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톱10' 입상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나상욱은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실버록 코스(파72·7천578야드)에서 열린 봅호프클래식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쓸어담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2라운드에 이어 이틀 연속 60대 타수를 때린 나상욱은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를 적어내 전날 공동 15위에서 공동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PGA 투어에 데뷔한 알렉스 프루(미국)가 21언더파 195타를 쳐 버바 왓슨과 마틴 플로레스(이상 미국·20언더파 196타)를 제치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 나상욱은 선두에 7타 뒤져 있지만 5라운드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만회할 기회는 충분이 남아있다.

시즌 첫 대회였던 소니오픈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나상욱은 전반에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며 상위권 추격을 시작했고 11번홀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프로골퍼 이정은 호반건설과 후원계약

프로골퍼 이정은(22·오른쪽)이 호반건설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은 24일 "이정은과 2012년까지 3년간 후원 계약에 합의했다"라며 "계약금과 별도로 성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여주 소재 스카이밸리골프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이정은은 3월 호주에서 열리는 'ANZ 레이디스 마스터즈'부터 모자와 유니폼, 캐디백 등에 호반건설 및 아파트 브랜드인 '베르디움'의 로고를 달고 활동하게 된다.

이정은은 지난해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와 아시아투데이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KIA 스토브리그 팬 서비스가 없다

스프링캠프 이벤트 마련안해 팬들 불만 고조

삼성·롯데 등은 투어상품 개발 '팬 모시기' 분주

'썰렁한 스토브리그'에 KIA 타이거즈 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이 전지훈련에 들어가면서 2010시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구단들은 스프링캠프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팬 서비스에 한창이다.

스프링캠프 현지 투어 상품이 판매되는가 하면 스프링캠프 모자와 시즌 달력 등의 상품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 프로야구 챔피언 KIA의 겨울은 이렇다할 이벤트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전지훈련 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팬들이 캠프지에서 선수들을 직접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팬들은 삼성 전지훈련이 진행되는 일본 오키나와 현지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연습경기 참관과 선수단과의 만찬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삼성 권오택 홍보팀장은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팬들의 요청으로 마련한 팬서비스의 일환이다"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투어에 참가하려는 팬들로 앞선 투어 모두 정원을 채웠을 만큼 호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사이판에서 훈련중인 LG와 롯데,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차린 두산도 선수단과 함께하는 투어 상품을 준비해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스프링캠프 모자도 속속 발매에 들어가 팬들 사이에 화제다.

스프링캠프 모자는 선수들이 전지훈련 시 착용하는 모자인데다 매년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스토브리그 관심사 중 하나다.

한화, 삼성, 히어로즈, SK는 2010 스프링캠프용 모자를 공개하고 한정판매를 하고 있다. LG와 두산은 전훈 참관단에게 스프링캠프 모자를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스포테이먼트(스포츠+엔터테이먼트)'를 지향하는 SK는 김성근 감독을 모자 모델로 내세워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모자와 함께 선수들을 모델로 한 벽걸이형 달력도 등장했다.

지난달 여성팬들을 위해 '김광현의 여성야구교실'을 마련했던 SK는 얼마전에는 '캠프 격려문' 이벤트도 진행했다. 팬들이 직접 응모한 격려문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SK의 오키나와 캠프에 걸기 위한 이벤트였다.

이처럼 다른 구단들이 팬들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KIA만 유일하게 참관단 구성이나 스프링캠프 상품발매 계획이 없어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다른 구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지훈련 사진과 현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지만 KIA는 이를 담당할 프런트를 따로 파견하지 않아 팬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선수단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야자키 캠프로의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호텔까지 예약한 팬들까지 생겼다. KIA 팬사이트에서는 달력과 핸드폰줄 등 상품을 계획, 제작해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다.

KIA는 12년 만의 우승을 달성한 지난해 원정경기에서 총 102만4천219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며 관중동원력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위팀' KIA의 스토브리그 팬서비스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